

'기업 살리고, 활기 높이고'

'새만금 활기업 축제' 오늘부터 사흘간 개최 기업 · 관광 아우르는 볼거리 · 즐길거리 다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의 기업종사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인 '새만금 활기업(活 기업, 활기 UP)축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업은 살리고, 활기는 높이고!'를 주제로 펼쳐진다. 축제기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기업종사자들에게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첫 날인 24일에는 투자유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보조행사장인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투자설명회 후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상세한 소개와 함께 투자 의향 기업들과의 진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기업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개막식이 있을 예정이다.

기업종사자들 간 화합을 도모할 '가을 피크닉', '단합력을 올릴 수 있는 미니 올림피아드', 그리고 근로자들이 쉼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래자랑



대회'가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기업인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업지원선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기관의 의지를 다짐 다짐 계획이다. 이후 김태우·웁스·이대원·나미에 등의 특별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내가 퀴즈왕', '찾아라 새만금의 보물', '스텝 투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어린이 뮤지컬, 버블쇼가 준비되어 있고, '가족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새로운 기술·산업과 새만금 인근 지역의 문화 및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기업홍보부스는 스마트폰, 탄소, 메타버스, 자동차, 전차상거래, 에너지·환경, 지역특산물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새만금 및 전북의 미래 기술·산업을 둘러볼 수 있게 꾸렸다.

이밖에, 군산·김제·부안 각 지역의 인기 먹거리와 문화체험행사를 새만금 활기업 축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지역 특산물도 라이브 커머스 및 행사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활기업 축제는 기업종사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축제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라면서,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며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한인 비즈니스대회로 한껏 올라간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의 위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관계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기관 간 화합으로 새만금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 개막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만열 전 국무편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왜곡 · 은폐된 간토대학살의 실상 알리다

국회사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르포컷 전시회 개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김운덕·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 개막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무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형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저명인사와 역사 학자들이 함께해 역사의 진실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밝혀낸 다양한 역사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그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간토대학살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

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만열 이사는 "역사에서 '역사'의 큰 흐름은 작은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다"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과거를 정확히 직시해야만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며, "시민사회가 증거를 찾아냈으니 이제는 정부와 국가가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주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회를 통해 "국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며, "국가의 무관심으로 진실이 덮이지 않도록 간토대학살 진실규명을 위한 관

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공동 주최한 김운덕 의원은 "국민을 지키지 못해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일본에 사과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기를 다해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김태영 감독과 역사학자 황현필씨는 학술 발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전시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필요'

김대중 도의원, 개정 조례안 통해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의산 1)이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도 조례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불과했던 지원사업 내용을 더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이번엔 추가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브랜드 택시 정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택시 공용차고지 설치사



업 지원, 택시 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지원이다.

또한, 도지사가 택시 운송사업자의 복지 증진 및 자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또는 장비 이외에 운송종사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가되었다.

그밖에 택시 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송종사자가 그 피해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해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감 대안 '무분별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민주 윤준병 의원

불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3일,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



의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음·김태환 기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음·김태환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한인 경제인의 소감

"미국 CES보다 더 알찬 대회"

구교진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의 회장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의소 회장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구교진(미국명 Jim Koo)씨는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놀랐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오렌지카운티에서 2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전부를 방문했다.

그는 개막 첫날 가을비에도 모 든 행사가 계획대로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평했다.

특히, 개막식에서 상영된 디지털 공연과 초대 귀빈들에게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한 아이디어는 굉장 하다고 칭찬했다. "어떤 분야의 아이디어였는지 몰라도, 한국적인 요소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민찬과 호텔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번 대회에 놀란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참가인데, 지난해 제가 직접 준비했던 에너히임 대회를 비롯해서 지난 대회랑 비교하면 이번 대회가 준비 면에서 뛰어났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깊은 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기업전시관을 언급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업은 코스메틱 기업들이다. 그는 "저는 IT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코스메틱 제품들이 미국의 네일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조식품과 농식품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의 전시장 구성을 두고 CES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뛰어나다는 총평을 남겼다. "CES는 주로 IT 위주지만,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산업을 집약적으로 잘 모아 구성해됐다"라고 극찬했다.



"세계 한인들이 주목받는 계기"

김형률 미주 한인상의 총연합회 이사장

미주 한인상공회소 총연합회 이사장 김형률(미국명 Eric Kim)은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전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 37년 동안 사업을 해온 한인 사업가 로, 이번 대회는 아홉 번째 참석 이다.

그는 이번 대회가 한상대회에서 명칭을 바꾸고 국내 에서 첫 번째 열리는 대회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작년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그러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회의 구성과 전반적인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작년 대회 결정 당시 전북이 한 포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는 회상과 함께 그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에서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포를 던졌는데, 그 포가 제가 던진 표였다가 게 뿌듯할 정도"로 행사가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도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전시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행사 취지에 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높이 샀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산업과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개최되면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서 전북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기업인들의 소감

"해외 바이어 만날 절호의 기회"

허용갑 유니크 바이오텍 대표

이번 대회에 전시기업으로 참여한 유니크 바이오텍의 허용갑 대표이사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한국어로 소통 가능한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유니크 바이오텍은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소재한 기업으로 이번 대회가 전북에서 열리게 됐다 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전주에서 대회가 열려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공장 견학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 1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유니크 바이오텍은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미국 에너히임에서 열린 이차 대회에도 참가했던 그는 "에너히임 대회와는 달리 이번 전북대회에서는 더 많은 제품을 들고 나와 더 많은 바이어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상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품과 기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수출 의사를 밝힌 미국 바이어가 있었다"며,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베트남과 몽골에서 온 바이어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기업인 만큼 각국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번역과 서류 준비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뷰티 세계적 관심 실감"

남궁진 피에스비 바이오 실장

정음에 소재한 코스메틱 기업 피에스비 바이오의 남궁진 실장은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케이뷰티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전부를 찾아와서인지 전시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많이 성사됐다"면서, "특히 사전 상담 신청자 외에도 워크인(예약 없이 직접 찾아온) 바이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남궁 실장은 이번 대회의 장점 중 하나로 전시회가 현지에서 진행된 점을 꼽았다. "전북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제품을 현장에서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바이어들에게 공장 견학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주요 목표 고객으로 인도시장을 선택했던 그는 "예상대로 인도 바이어들과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인도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계속 잡혔고 샘플 구매가 적은 인도 바이어들이 직접 샘플을 구매 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면서, "케이 뷰티에 대한 인도 시장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도 외에 베트남과 아프리카 바이어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가나 바이어들과의 미팅 덕분에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기관 차원에서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번 대회의 성과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한인 경제인의 소감

"미국 CES보다 더 알찬 대회"

구교진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의 회장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의소 회장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구교진(미국명 Jim Koo)씨는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놀랐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오렌지카운티에서 2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전부를 방문했다.

그는 개막 첫날 가을비에도 모 든 행사가 계획대로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평했다.

특히, 개막식에서 상영된 디지털 공연과 초대 귀빈들에게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한 아이디어는 굉장 하다고 칭찬했다. "어떤 분야의 아이디어였는지 몰라도, 한국적인 요소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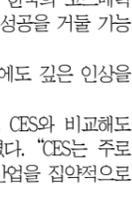
민찬과 호텔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번 대회에 놀란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참가인데, 지난해 제가 직접 준비했던 에너히임 대회를 비롯해서 지난 대회랑 비교하면 이번 대회가 준비 면에서 뛰어났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깊은 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기업전시관을 언급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업은 코스메틱 기업들이다. 그는 "저는 IT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코스메틱 제품들이 미국의 네일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조식품과 농식품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의 전시장 구성을 두고 CES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뛰어나다는 총평을 남겼다. "CES는 주로 IT 위주지만,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산업을 집약적으로 잘 모아 구성해됐다"라고 극찬했다.



"세계 한인들이 주목받는 계기"

김형률 미주 한인상의 총연합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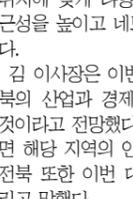
미주 한인상공회소 총연합회 이사장 김형률(미국명 Eric Kim)은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전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 37년 동안 사업을 해온 한인 사업가 로, 이번 대회는 아홉 번째 참석 이다.

그는 이번 대회가 한상대회에서 명칭을 바꾸고 국내 에서 첫 번째 열리는 대회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작년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그러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회의 구성과 전반적인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작년 대회 결정 당시 전북이 한 포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는 회상과 함께 그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에서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포를 던졌는데, 그 포가 제가 던진 표였다가 게 뿌듯할 정도"로 행사가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도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전시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행사 취지에 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높이 샀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산업과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개최되면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서 전북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기업인들의 소감

"해외 바이어 만날 절호의 기회"

허용갑 유니크 바이오텍 대표

이번 대회에 전시기업으로 참여한 유니크 바이오텍의 허용갑 대표이사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한국어로 소통 가능한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유니크 바이오텍은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소재한 기업으로 이번 대회가 전북에서 열리게 됐다 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전주에서 대회가 열려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공장 견학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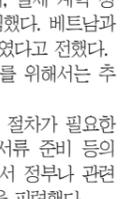
해외 1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유니크 바이오텍은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미국 에너히임에서 열린 이차 대회에도 참가했던 그는 "에너히임 대회와는 달리 이번 전북대회에서는 더 많은 제품을 들고 나와 더 많은 바이어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상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품과 기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수출 의사를 밝힌 미국 바이어가 있었다"며,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베트남과 몽골에서 온 바이어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기업인 만큼 각국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번역과 서류 준비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뷰티 세계적 관심 실감"

남궁진 피에스비 바이오 실장

정음에 소재한 코스메틱 기업 피에스비 바이오의 남궁진 실장은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케이뷰티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전부를 찾아와서인지 전시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많이 성사됐다"면서, "특히 사전 상담 신청자 외에도 워크인(예약 없이 직접 찾아온) 바이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남궁 실장은 이번 대회의 장점 중 하나로 전시회가 현지에서 진행된 점을 꼽았다. "전북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제품을 현장에서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바이어들에게 공장 견학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주요 목표 고객으로 인도시장을 선택했던 그는 "예상대로 인도 바이어들과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인도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계속 잡혔고 샘플 구매가 적은 인도 바이어들이 직접 샘플을 구매 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면서, "케이 뷰티에 대한 인도 시장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도 외에 베트남과 아프리카 바이어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가나 바이어들과의 미팅 덕분에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기관 차원에서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번 대회의 성과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